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7호 [루계 제2663호]

주체 110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음력 8월 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이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9월 9일 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우리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함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환희의 축포가 황홀한 불꽃바다를 펼쳐며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대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을 향하여 손저어 답례하시며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일을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존엄과 영광을 찾고 그 존엄을 역세게 키워온 우리 공화국의 73년의 역사를 뜻깊게 경축하는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차넘치는 속에 국기제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주악과 함께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연설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고 민간 및 안전무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되었다.

주체 48(1959)년 1월 14일 로농적위군의 창건을 선포한 력사의 그날로부터 60여년간 마치고와 낫, 붓과 함께 총대를 역세게 틀어잡고 사회



를 충성으로 받들어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력사적전군을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가고있는 미더운 사회안전군장병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서의 생활력을 과시하며 로농적위군의 기계화종대들이 자랑찬 진군화복을 펼치었다.

열병식이 끝나고 또다시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시작되었다.

야회 및 축포발사가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전면적인 국가부흥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만방에 빛내여가시는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자위의 굳건한 성세를 이룬 일심일체의 참모습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주의건설과 조국보위의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왔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튼튼히 다지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당의 혁명무장력, 주체적민간무력의 불패의 위용이 열병종대마다에 나타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어떤 천지변속에서도 령도자와 사상과 뜻, 운명을 함께 하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억척불변의 맹세를 안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튼튼한 열병종대들에 전투적 인사를 보내시었다.

민간무력종대들이 이어 광장에 들어선 사회안전군종대가 혁명선열들이 피로써 지킨 사회주의조국의 고귀한 전취물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가는 혁명의 붉은 방패의 위용을 과시하며 주석단앞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보위대, 혁명무력의 일익을 담당한 정예부대의 필승의 기개를 떨치며 나아가는 열병대오에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며 격려해주시었다.

일당백혁명강군인 인민군대와 함께 당중앙의 령도

